

빅테크는 되고, 은행은 안되고... 금융사 역차별 아우성

은행은 사업 승인에 하세월인데 빅테크는 금융규제 안받아 유리 카드사·은행 생존에도 영향 우려 금융사 규제 완화 시급 목소리

금융시장에 빅테크(BigTech) 기업이 진입하자 기존 금융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체와 제휴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빅테크 기업과 달리 기존 금융사는 사업을 확장하려 해도 승인절차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서다. 금융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1사 전속주의 규제 등을 풀어주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올 하반기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상공인(SME)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들 상품은 최저 금리 연 4~10%대로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통해 대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67%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2030세대인 만큼 이들의 단골고객 비중과 평판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서비스가 금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출 서비스에 앞서 네이버 통장·자동차보험 비교견적·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 서비스 모두 금융을 다루고 있지만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돼 금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사·빅테크 견해>

금융사	구분	빅테크
은행은 특정 보험사상품 25% 이상 판매 금지	보험상품 판매	상품광고일뿐 판매 아냐
여러 대출상품 동시 비교 어려워	대출비교플랫폼 (1사 전속주의)	소비자 편의성 높여주는 서비스
건전성 규제없이 사실상 신용공여	후불결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따라 건전성 관리
이자로 봐야	충전금 리워드 지급	소비자 이용정보 준 것에 대한 보상
빅테크 쇼핑검색정보도 줘야	마이데이터사업	네이버파이낸셜 결제데이터 정보만 제공, 그 외 정보는 네이버파이낸셜 데이터 아냐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직접 금융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사 각자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휴를 열어두고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서 금융사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사, 네이버 단순 조력자로 보기 어려워

그러나 기존 금융사는 네이버파이낸셜을 단순 '조력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놓은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상품은 은행과 카드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 필요할 때 카드 단기대출, 은행의 대출을 주로 이용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의 평균 단기대출 금리는 연 15.10%다. 상대적으로대출규모가 큰 은행들은 대출 심사기간이 최소 3~5시간 소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소액이라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을 집행하는 만큼 심사 속도가 빨라 카드 단기대출(금리)이나 은행 대출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이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사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 속도가 빠른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사,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

이에 따라 금융사는 네이버파이낸셜, 핀테크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겸업할 경우 금감원 확인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에게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들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1사



모바일페이. /유투이미지

전속주의 규제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한해 풀어주면서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 같은 특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기존 금융회사에 1사 전속주의가 남아 있는 한 빅테크에 예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장치에 대해선 금융사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제휴를 통해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제휴를 했더라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이스피싱환급 통지서 12월부터 카톡으로 발송

금감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일환

올해 12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민원인 역시 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기우편이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수령률도 저조하다"며 "매년 서면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거쳐 전자등기우편을 바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행복을 싣고 나르는 티웨이항공

통영/거제 1박2일(매일출발)

229,000원 부터 (문의 해주세요)

한려수도의 아름다움과 동영
예향의 도시, 통영

즐거워 통영!
아름다운 자연, 천혜의 비경 속으로!

날짜	일정	비고
제1일	김포공항 - 김해공항 - 거제도(외도) - 통영	
제2일	통영 - 연대도(만지도) - 통영케이블카 - 통영시내투어 - 김해공항 - 김포공항	

- 포함내역 : 김포 - 부산왕복항공료,연계차량료(1박2일), 숙박료, 식사료(3식), 입장료,
- 불포함내역 : 기타 개인경비,여행자보험, 포함내역 외 식사

나라여행

NARA TOUR

02-542-7115

www.naratour.kr